

한국갤럽 Gallup Report 2012/12/24

제18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의 후보 선택 이유는?

지난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51.6% 득표율로 당선돼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국갤럽은 대선 당일 투표 마감 직후인 19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선거 사후조사를 통해 후보 선택 이유와 결정 시기, 영향 요인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사 개요

1. 모집단: 전국의 만 19세 이상 제18대 대통령 선거 투표자
2. 조사지역과 표본크기: 전국 1,036명
3. 조사방법: 휴대전화 RDD 조사
(한국갤럽 전화조사원이 무작위로 생성된 휴대전화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인터뷰)
4. 조사기간: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일 저녁 6~9시
5.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6. 표본오차: $\pm 3.1\%$ 포인트(95% 신뢰수준)
7. 응답률: 33%

주요 결과

- ✓ 박근혜 후보 선택 이유는 '신뢰와 약속' 22%, '공약/정책' 14%, '최초의 여성대통령' 14%
- ✓ 문재인 후보는 '정권 교체/심판' 26%, '공약/정책' 20%, '상대 후보가 싫어서' 15%
- ✓ 가장 마음에 드는 공약/주장: 박근혜 '민생 안정' 8%, 문재인 '사람이 먼저다' 14%
- ✓ 선거 전 일주일 이내 투표 후보 결정, 박근혜 16%, 문재인 27%
- ✓ '투표 후보 결정시 TV토론 참고' 54%,
문재인 투표자에서 '인터넷, SNS' 영향 상대적으로 커
- ✓ 이번 선거의 문제점은 '네거티브' 43%
- ✓ 안철수 전 대선 후보 향후 정치 활동에 대해 '찬성' 47%, '반대' 40%
- ✓ 국정원 직원 불법 선거운동 사건 경찰 중간 발표: '신뢰한다' 33%, '신뢰하지 않는다' 54%

**박근혜 후보 선택 이유는 '신뢰와 약속' 22%, '공약/정책' 14%, '최초의 여성대통령' 14%
문재인 후보는 '정권 교체/심판' 26%, '공약/정책' 20%, '상대 후보가 싫어서' 15%**

한국갤럽이 제 18 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인 19 일 저녁 6 시부터 9 시까지 전국 19 세 이상 투표자 1,036 명에게 오늘 투표한 후보를 묻은 결과, '박근혜' 47%, '문재인' 45%이고 '기타 후보' 1%, '모름/무응답'은 8%로 응답됐다. 실제 투표 결과는 박근혜 51.6%, 문재인 48.0%로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 결정됐으며 사후조사의 무응답자를 배분했을 때의 지지도 비율과 거의 일치한다.

각 후보 투표자들에게 투표 이유를 묻은 결과

박근혜 후보 투표 이유로는(482 명) '신뢰가 가서/약속을 잘 지킬 것 같아서'가 22%로 가장 많고 '공약/정책이 좋아서' 14%, '최초의 여성대통령이어서' 14% 순으로 응답돼 박근혜 후보의 신뢰와 원칙 이미지가 선택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후보 투표 이유는(462 명) '정권 교체/심판'이 26%로 가장 많아 정권 심판론이 주요한 선택 요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제18대 대통령 후보별 투표 이유 (상위 10위, 2개까지 자유응답)

박근혜 투표자(482명)	%	문재인 투표자(462명)	%
신뢰가 가서/ 약속을 잘 지킬 것 같아서	22	정권 교체/심판	26
공약/정책이 좋아서	14	공약/정책이 좋아서	20
최초의 여성대통령	14	상대 후보가 싫어서	15
능력이 좋아서/잘 할 것 같아서	12	신뢰가 가서/ 약속을 잘 지킬 것 같아서	10
소속 정당이 좋아서	10	소속 정당이 좋아서	10
안정적이어서	9	민생을 챙길 것 같아서	8
국가 안보	9	개혁적	6
경험과 경력 때문	8	능력이 좋아서/잘 할 것 같아서	6
상대 후보가 싫어서	6	인물/이미지가 좋아서	6
박정희의 딸	5	청렴해서	5

(질문) 귀하께서 그 후보에게 투표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으로요?

가장 마음에 드는 공약/주장: 박근혜 '민생 안정' 8%, 문재인 '사람이 먼저다' 14%

투표 후보에 대해 가장 마음에 드는 공약 또는 주장을 묻은 결과

박근혜 후보의 경우 '민생 안정'이 8%, '중산층 복원' 6%, '반값 등록금' 4%, '복지정책 확대' 4% 등 슬로건보다는 서민 생활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 주를 이룬 반면
문재인 후보는 '사람이 먼저다'가 14%로 슬로건이 가장 많이 응답됐다. 이외에 '복지정책 확대' 7%, '민생 안정' 6%, '반값등록금' 6% 순으로 두 후보의 정책 내용은 공통점이 있었다.

▶ 가장 마음에 드는 공약/주장 (상위 5위, 자유응답)

박근혜 투표자(482명)	%	문재인 투표자(462명)	%
민생 안정	8	사람이 먼저다	14
중산층 복원	6	복지 정책 확대	7
반값 등록금	4	민생 안정	6
복지 정책 확대	4	반값 등록금	6
국가 안보	4	경제 민주화	4

(질문) 그 후보가 내세운 공약이나 말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신 것은 무엇입니까?

선거 전 일주일 이내 투표 후보 결정, 박근혜 16%, 문재인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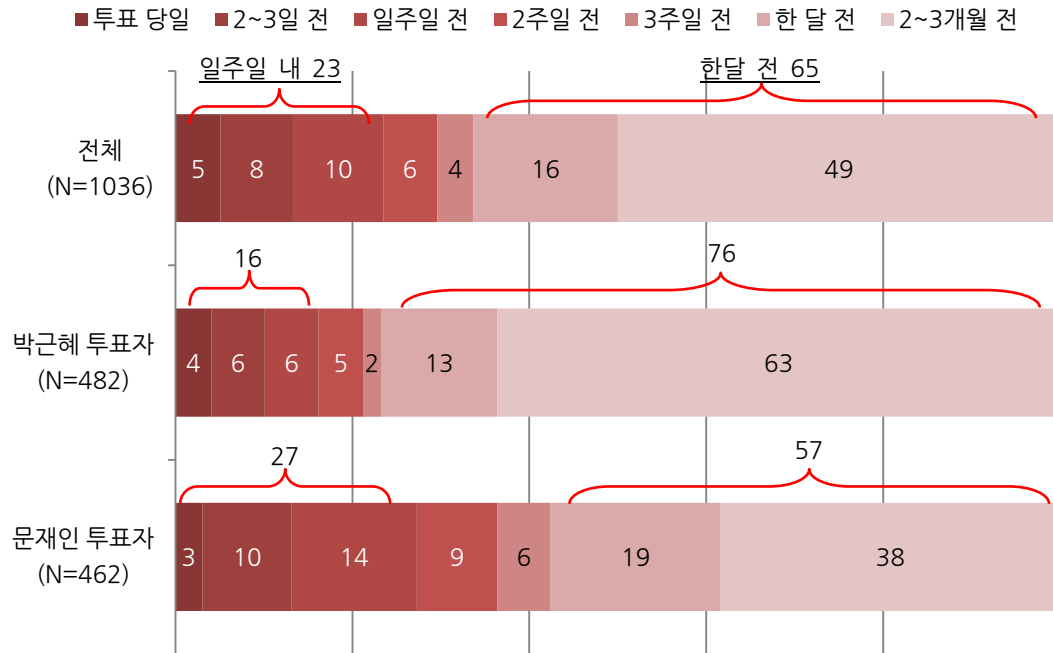
투표 후보 결정 시기를 묻은 결과

2~3 개월 전 결정은 49%, 한 달 전 16%로 투표자 중 65%가 선거 한 달 전에 이미 투표 후보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표 당일 5%, 2~3 일 전 8%, 일주일 전 10%로 일주일 내 투표후보 결정은 모두 23%로 유권자 4 명 중 한 명에 해당했다.

후보별로 보면 박근혜 투표자 중 76%가 한 달 전에 이미 투표 후보를 결정했고 선거 전 일주일 이내 결정자는 16%였다. 반면 문재인 투표자 중 한 달 전 결정자는 57%, 선거 전 일주일 이내 결정자는 27%로 문재인 후보로의 표심 결집이 막판에 집중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중 한국갤럽 데일리정치지표에서 박근혜 후보 지지도는 이전 수준인 46~47% 선을 유지한 반면 문재인 후보의 지지도는 41%에서 45%까지 상승했다.

▶ 투표 후보 결정 시기 (단위: %)



(질문) 그 후보를 찍기로 결정하신 것은 언제쯤이었습니까?

**‘투표 후보 결정 시 TV 토론 참고’ 54%,
문재인 투표자에서 ‘인터넷, SNS’ 영향 상대적으로 커**

투표 후보 결정 시 참고한 매체로는 ‘TV 토론’이 54%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신문/방송 보도’ 23%, ‘인터넷’ 18%의 순이었다. 역시 투표 후보별로 참고 매체에 차이가 있었다.

박근혜 후보 투표자는 ‘신문/방송 보도, 주위 사람/가족, 선거유세’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컸던 반면 문재인 후보 투표자는 ‘TV 토론’과 ‘인터넷, SNS’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3차례의 TV 토론이 기존 구도를 뒤집을 정도의 큰 변화는 일으키지 못했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후보 결정 시 TV 토론을 중요하게 꼽아 TV 토론의 영향력은 지지 후보 변경보다는 기존 지지 후보에 대한 확신을 굳히는 데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투표 후보 결정시 참고 매체 (상위 5위, 2개까지 응답)

전체 (1,036명)	%	박근혜 투표자 (482명)	%	문재인 투표자 (462명)	%
TV 토론	54	TV 토론	45	TV 토론	65
신문/방송 보도	23	신문/방송 보도	30	인터넷	28
인터넷	18	주위 사람/가족	14	신문/방송 보도	17
주위 사람/가족	13	선거유세	12	주위 사람/가족	11
선거 유세	8	인터넷	11	SNS	9

(질문) 투표할 후보를 결정하는 데 가장 많이 참고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으로요?

이번 선거의 문제점은 '네거티브' 43%

이번 선거의 문제점에 대한 물은 결과 '네거티브'가 43%로 가장 많이 지적됐고 이외에 '언론의 불공정 보도' 8%, 'TV 토론 미흡' 6%, '지역 감정 자극' 4% 등이 응답됐다.

▶ 이번 선거의 문제점 (상위 5위, 자유응답)

전체 (1,036명)	%	박근혜 투표자 (482명)	%	문재인 투표자 (462명)	%
네거티브	43	네거티브	49	네거티브	39
언론의 불공정 보도	8	지역감정 자극	5	언론의 불공정 보도	14
TV토론 미흡	6	TV토론 미흡	4	TV토론 미흡	6
지역감정 자극	4	미검증 후보 출마	3	지역감정 자극	4
공약 부족/남발	3	공약 부족/남발	2	관권선거	4

(질문) 이번 선거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전 대선 후보 향후 정치 활동에 대해 '찬성' 47%, '반대' 40%

올 대선에서 '안철수 현상'을 불러일으킨 안철수 전 대선후보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찬성' 47%, '반대' 40%로 찬성이 더 많았다. '모름/의견없음'은 13%였다.

안 전 후보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 투표 후보별로 찬반이 엇갈려 문재인 투표자의 74%가 찬성한 반면 박근혜 투표자의 64%가 반대했다.

연령별로도 20대는 71%가 안 전 후보의 정치 활동을 찬성한 반면 50대는 54%가 반대에 의견이 달랐다.

▶ 안철수 전 대선 후보 향후 정치 활동 찬반 (단위: %)

구분	사례수(명)	찬성	반대	모름/ 의견없음
전체	1,036	47	40	13
성별	남성	51	39	10
	여성	44	41	16
연령별	19~29세	71	25	4
	30대	58	34	8
	40대	51	39	9
	50대	35	54	11
	60세 이상	23	46	31
투표 후보별	박근혜	23	64	13
	문재인	74	17	9

(질문) 귀하는 안철수 씨가 향후 계속해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국정원 직원 불법 선거운동 사건 경찰 중간 발표: ‘신뢰한다’ 33%, ‘신뢰하지 않는다’ 54%

국정원 직원 불법 선거운동 사건에 대한 경찰의 중간 발표에 대해서는 ‘신뢰한다’ 33%, ‘신뢰하지 않는다’ 54%로 불신하는 국민이 더 많았다.

투표 후보별로 보면 문재인 투표자의 83%가 경찰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반면 박근혜 투표자의 55%가 경찰 발표를 ‘신뢰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40대 이하에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60% 이상이었고 50대 이상에서는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로 의견이 갈렸다.

▶ 국정원 직원 불법 선거운동 사건 경찰 중간 발표 신뢰 여부 (단위: %)

구분		사례수(명)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	모름/ 의견없음
전체		1,036	33	54	13
성별	남성	513	33	53	14
	여성	523	32	55	12
연령별	19~29세	189	28	64	8
	30대	210	29	70	12
	40대	227	27	61	12
	50대	197	45	41	15
	60세 이상	213	44	36	20
투표 후보별	박근혜	482	55	29	16
	문재인	462	9	83	7

(질문) 최근 국정원 직원이 문재인 후보를 비방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요, 경찰은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무혐의라는 중간 발표를 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경찰 발표를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지 않으십니까?